

-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 수량적 고용조정이 대폭 증가하였다가 이후 2000년까지 감소세가 유지되었음. 그러나 2000년 이후 경기와 무관하게 고용조정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줘 기업이 항시 구조조정체계하에서 일상적인 고용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1998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DB는 임금근로자의 고용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이하에서는 고용보험DB를 이용해 2000년 들어 비자발적 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지와 비자발적 이직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은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자발적 이직이란 전직·자영업, 결혼·출산·가사사정, 질병·부상·노령, 징계해고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임.
 - 반면 비자발적 이직은 근로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업이나 일자리 특성에 의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회사이전 등 근로조건 변동,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폐업·도산·공사중단,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공사종료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비자발적 이직자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과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받아들여짐.

◆ 비자발적 이직자 증가추세

- [그림 1]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이직자 및 비자발적 이직자 추이로 노동시장 유동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00년 전체 이직자(298만 명) 중 개인의 의사와 달리 불가피하게 직장을 떠난 비자발적 이직자가 23.2%(69만 명)로 나타남. 이 중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는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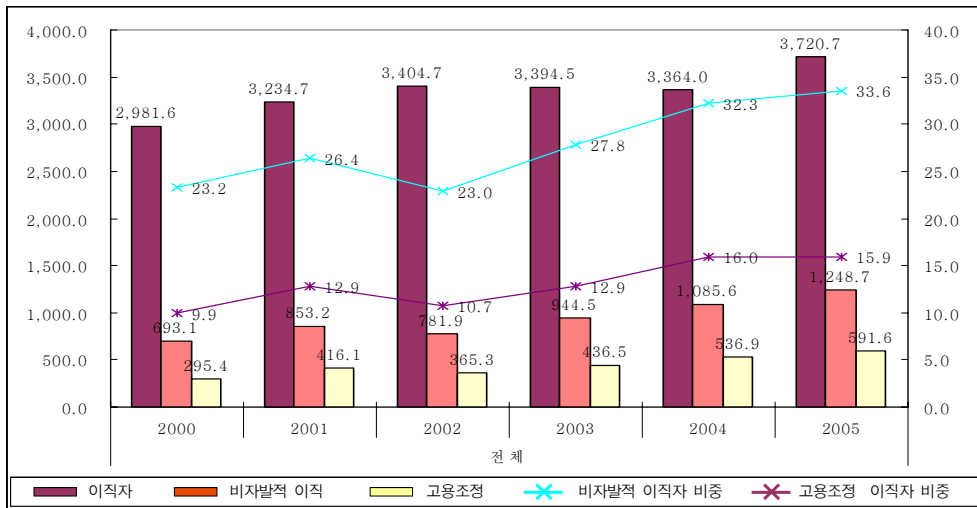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parksj@kli.re.kr).

(29만 명)임.

- 그러나 2005년에는 전체 이직자가 372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약 25% 가량 증가하였음. 비자발적 이직자와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 역시 33.6%, 15.9%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함. 이는 2000년에 비해 각각 10%p, 6%p 증가한 것임.

[그림 1] 연도별 비자발적 이직자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이하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2000~2005.

◆ 인적특성별로는 여성, 고령자의 비자발적 상실비중 높아

- 자격상실자를 인적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고령자일수록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표 1 참조).
 - 남녀 모두 전체 이직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2000년 23.3%에서 2005년 30.6%로 7.3%p 증가)에 비해 여성(2000년 23.2%에서 2005년 37.8%로 14.6%p 증가)의 증가폭이 훨씬 높았음.
-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2000년 전체 이직자의 48.0%→2005년 39.1%), 전체 이직자 중 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비율은 2000년 16.4%에서 2005년 24.7%로 증가함.
 - 청년층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반면 55세 이상 고연령자는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이직자임.

- 연령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위 '사오정'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 인적특성별 비자발적(고용조정) 이직자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30세 미만	30~55세	55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2000	23.3	23.2	16.4	28.0	43.9	693.1 [23.2]
	2001	26.6	26.0	18.6	31.6	44.9	853.2 [26.4]
	2002	22.9	23.1	15.8	27.2	41.8	781.9 [23.0]
	2003	27.0	29.1	20.1	32.2	46.1	944.5 [27.8]
	2004	29.7	36.0	24.1	36.2	49.8	1,085.6 [32.3]
	2005	30.6	37.8	24.7	37.0	52.2	1,248.7 [33.6]
고용조정 에 의한 이직	2000	10.0	9.7	7.0	12.4	14.3	295.4 [9.9]
	2001	12.9	12.8	9.7	15.5	15.5	416.1 [12.9]
	2002	10.9	10.5	8.0	12.9	12.9	365.3 [10.7]
	2003	12.3	13.8	9.9	15.0	15.7	436.5 [12.9]
	2004	15.5	16.7	12.3	18.8	17.2	536.9 [16.0]
	2005	15.6	16.4	12.1	18.4	17.7	591.6 [15.9]

◆ **직업특성별로는 장기근속자, 전문가·사무직·기능직에서 비자발적 상실자 증가**

- 이직자를 직업특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먼저 근속년수가 길수록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높음.
 - 근속년수가 3년 미만인 자가 전체 이직자의 85% 수준에 이르고, 특히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전체 이직자의 57~60%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20~28% 수준이지만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50~60%에 이르고 있음.
 -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 비중을 보면 2005년의 경우 1년 미만 단기근속자는 10.7% 불과하지만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39.2%에 이르고 있음. 이는 기업들의 고용조정이 고연령층의 장기근속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 직종별로는 농어업근로자(55.0%), 고위전문관리직(42.9%), 전문가(41.8%), 단순노무직(39.8%), 사무직(35.5%)의 비자발적 이직이 높음. 반면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는 고위전문관리직(28.0%), 사무직(21.0%), 기능원(15.3%)에서 높았음.
 - 2000년과 2005년 비자발적 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전문가·사무직과 기능직급

에서 비자발적 이직자가 빠르게 증가하였음. 즉,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은 2000년 10.8%에서 2005년 21.9%로 비자발적 이직자가 102.7%가 증가하였고 전문가(89.1%), 단순노무직 근로자(54.8%), 사무직(49.2%)도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급증하였음.

〈표 2〉 직업특성별 비자발적(고용조정) 이직자 비중 추이

(단위 : %)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 비중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근속	1년 미만	19.8	21.4	18.3	22.2	27.4	28.8	6.7	8.6	6.9	8.8	11.0	10.7
	1~3년	26.1	29.2	26.3	32.7	36.2	36.9	12.7	15.2	13.2	15.9	20.4	20.1
	3~5년	27.1	32.9	30.4	36.5	39.4	41.0	14.6	18.8	16.0	18.2	23.9	24.6
	5~10년	31.0	39.1	34.2	38.1	44.0	46.0	17.6	24.6	21.7	22.6	27.5	29.0
	10년 이상	47.2	58.8	52.7	56.4	57.7	60.3	27.6	38.9	35.5	37.0	35.8	39.2
직종	고위직/관리자	32.6	38.3	32.5	38.9	41.1	42.9	20.9	26.6	21.6	24.6	27.6	28.0
	전문가	22.1	28.6	27.8	33.3	39.7	41.8	11.0	14.8	13.2	14.0	14.5	12.7
	기술공/준전문가	22.8	25.2	21.3	25.1	27.6	28.1	10.6	12.7	10.4	11.5	14.5	14.8
	사무직원	23.8	27.8	24.6	30.3	35.2	35.5	12.9	17.5	15.0	18.4	21.4	21.0
	서비스판매직	18.1	18.2	15.9	21.0	23.1	23.4	8.1	8.4	6.9	9.1	12.9	12.5
	농어업근로자	46.8	51.4	49.3	52.3	46.2	55.0	9.9	15.4	12.5	14.9	12.4	13.6
	기능원	24.1	27.0	23.2	27.7	30.1	30.2	8.4	11.7	10.1	11.0	14.7	15.3
	조립원	10.8	14.7	12.1	14.4	18.9	21.9	5.4	8.0	6.0	7.8	10.9	12.2
	단순노무직	25.7	28.8	24.9	29.8	36.9	39.8	7.7	9.6	7.5	9.5	12.6	12.9

◆ 사업장특성별로는 소규모 사업장과 제조업·서비스업에서 비자발적 상실자 증가

○ 사업장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이직자 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의 비중이 과반에 이르고 있고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30인 미만 사업장: 2000년 45.5%→2005년 53.8%, 300인 이상 사업장: 2000년 19.9%→2005년 15.1%).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조건 불일치 등의 이유로 이직률이 높은 편인데 장기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자발적 혹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원감축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임.

- <표 3>을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와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가 각각 22.9%, 11.7%였으나 2005년에는 34.6%, 17.6%로 영세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크게 증가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역시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그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증가폭이 낮아 최근의 경기침체가 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구조조정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이직한 자의 비중(2000년 전체 이직자의 35.4%→2005년 29.6%)이 가장 높지만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반면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
 - 특이한 점은 이들 3개 업종과 교육서비스업은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고용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으며 서비스업은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교육서비스업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자가 2000년 25.6%에서 2005년 51.6%로 급증하였으나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는 11.7%에서 9.3%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조정보다는 계약만료, 폐업 등의 이유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KLI**

〈표 3〉 사업장 특성별 비자발적(고용조정) 이직자 비중 추이

(단위: %)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 비중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규모	30인 미만	22.9	25.7	24.4	30.8	34.9	34.6	11.7	13.7	11.9	14.1	17.7	17.6
	30~99인	20.6	24.4	21.1	25.5	29.1	32.3	8.6	11.4	9.8	12.5	15.1	14.8
	100~299인	22.1	24.5	20.6	22.9	28.8	33.2	7.5	9.7	8.1	9.8	13.2	13.1
	300인 이상	27.4	31.6	22.6	25.3	29.4	31.6	8.8	14.6	10.5	11.9	13.4	13.7
업종	농림어업	46.7	51.9	53.6	49.8	55.6	62.5	8.0	8.9	9.0	9.6	7.3	8.8
	광업	32.9	43.4	34.1	27.3	41.0	42.6	16.5	24.8	20.6	13.4	18.5	25.8
	제조업	17.3	23.5	19.8	24.9	28.4	29.2	8.8	14.1	11.6	14.1	18.0	18.1
	전기가스	31.7	52.4	28.2	36.9	45.6	49.7	8.2	8.7	6.2	7.0	16.1	12.7
	건설	36.2	36.6	29.9	33.0	31.7	28.6	11.0	10.9	8.1	8.1	13.0	13.9
	도소매음식숙박	22.0	23.0	22.1	28.8	29.5	28.4	11.2	12.5	11.4	13.8	18.9	17.5
	운수통신	14.0	18.3	13.5	18.5	20.3	23.7	6.5	10.1	7.1	11.2	11.5	12.8
	금융보험	41.0	36.9	29.0	34.1	46.1	45.4	16.2	19.7	14.3	16.5	22.2	19.8
	부동산임대서비스	25.6	26.1	22.8	27.7	33.4	35.1	10.1	13.7	12.3	15.0	17.4	17.6
	교육서비스	26.6	33.3	32.8	42.4	49.5	51.6	11.7	10.4	8.9	10.1	10.8	9.3
	보건사회복지	18.4	20.9	20.3	22.7	28.2	28.4	8.6	7.1	7.8	9.6	13.3	13.8
	기타공공	28.3	30.5	34.4	33.2	34.1	39.5	11.0	13.0	10.5	12.7	13.1	14.1
	기타산업	33.3	48.3	43.4	48.4	74.0	79.6	12.6	17.4	6.9	6.4	2.4	2.4